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서사전략 연구

이 현 영*

요약

본 논문은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의미와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신화 너머에 숨겨둔 속뜻을 통해 작가의 입장이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이청준 소설의 특질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2장에서는 아기장수 설화에 관한 알레고리적 독해 방법으로 분석했다. 본고는 아기장수 설화에 등장하는 아기장수, 부모, 권력층, 그리고 아기장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조력한 용마와 같은 주요 키워드들이 갖는 관계의 상징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기장수의 죽음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앞뒤로 배치한 서술 장치 및 용마바위란 장소의 알레고리를 통해 4·3 사건의 대량학살이 벌어진 남선리 뒤 고갯길에 대한 공간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편 3장에서는 아기장수 변이형인 김통정 설화 속에 담긴 영웅과 이웃 간의 관계 상징성에 주목하였다. 이는 작가의 이전 소설들에서 나타난 이웃에 관한 소재들과도 관련시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웃에 대한 작중화자의 두려움과 배신은 이 소설상에서도 전개된다. 4장에서는 이 소설에 숨겨진 서사적 장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K시와 지팡이 사내의 햇불 행렬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해석되어 온 것이 기존 논의들이라면 이와 달리 본고는 이러한 시간적 배치 자체를 5·18을 연상시키게끔 독자들을 압박하게 만드는 전략을 강구한 작가의 의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작가는 신화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암시된 의미를 숨겨두어 독자들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청준은 독자들이 숨겨진 요소들을 찾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둔 초기 소설 때와는 달리 후기 소설에 오게 되면 이른바 이청준식만의 '이중적 장

* 충북대학교 졸업

치단 전략을 구사한다. 요컨대 『신화를 삼킨 섬』은 독자들이 이청준의 숨겨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여러 낚임스들을 통해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하거나 혹 텍스트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독자들의 경우 작가가 위장한 장치들을 통해 그가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러한 장치를 이용했는가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전략을 보여준다. 작가의 이러한 서술 의도는 독서를 단순히 읽기만 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독자 스스로 텍스트 내부에 참여를 하여 즐기는 텍스트로써의 가능성을 여전히 유지시키면서도 소설의 긴장감을 잃지 않게 만든다.

주제어: 신화를 삼킨 섬, 아기장수 설화, 굿, 제주도, 이웃, 영웅, 서사적 전략

목차

1. 서론
2. 아기장수 설화에 담긴 알레고리적 의미망
3. 영웅과 이웃 간의 관계 상징성
4. 『신화를 삼킨 섬』에 숨겨진 서사적 장치
5. 결론

1. 서론

1965년 「퇴원」으로 등단한 이청준은 40여 년의 작품 활동을 하는 동안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작품 후기에 오면 신화 및 용서와 화해를 주제로 한 작품 세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평가된 작품이 바로 2003년에 발표된 『신화를 삼킨 섬』¹⁾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4·3사건이

1)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 지성사, 2011.

란 역사적 사건을 혼합시켜 신화라는 이미지적 상징을 수용해 서사를 진행시켜 나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정치 및 권력적 시각에 초점을 맞춘 논의²⁾, 복잡하고 다양한 시점이 혼합되어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한 논의³⁾, 제주 신화의 상징적 해석에 관한 논의⁴⁾ 등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이들 논의들은 본 논문에 참고점을 제시해 주지만 본고는 이러한 논의 이면에 숨겨진 장면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소설은 용서와 화해란 문제의식이 주제적 차원보다 그 전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논문은 소설의 중심축을 이루는 있는 아기장수 설화와 그 변이형인 김통정 설화에 주목해 아직 논리적 차원에서 해명되지 않은 몇 가지 심층의 의미를 독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신화들의 결합 과정들을 통해 정치 및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된다.

나카자와 신이치에 의하면 '신화'란 '이야기하지 않은 듯이 하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으로써 비밀스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았다. 가령, 세상에 '비밀이 있는 것'은 스스로를 보이면서 숨기는

2) 고인환,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연남경, 『집단학살의 기억과 서사적 대응』, 『현대소설연구』 제46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차혜영, 『냉소적 이성과 권력의 거리, 이청준 후기 소설연구』, 『한국언어문화』, 제3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3) 주지영,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틀서사와 환유』, 『비평문학』 제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마희정,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회귀의 서사 구조』, 『현대소설연구』 제6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4) 한순미,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오은엽, 『이청준 소설의 신화적 상상력과 공간』, 『현대소설연구』 4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것이라면 신화 또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면서도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의미망을 숨기려는 것⁵⁾이란 점이다. 모든 신화에는 각각 나름대로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인간은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 신화로 그 본질을 생각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화의 표면상에 그러한 면모가 모조리 드러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나카자와 신이치는 ‘신화’에 대해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와 마찬가지로 표면에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깊은 비밀 속으로 숨으려는 식의 공포감을 느끼면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볼 때 본고는 『신화를 삼킨 섬』에서 상징적 의미로 작용하는 아기장수 설화 및 김통정 설화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맥락적 차원에서 어떠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다. 서사적 사고에서는 사건과 사건의 결합과정에서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는데 어떠한 사건이 다른 어떠한 사건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망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설화 이면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직시하여 그 의미를 천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논의를 두고 폴 드 만의 독해 이론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맹목과 통찰』에서 폴 드 만은 내러티브를 읽으면 그 내러티브가 진술하지 않는 것이 말해질 뿐만 아니라 독자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다른 것도 생성된다⁶⁾고 지적했다. 드 만은 언어의 이러한 효과를 ‘알레고리’로 보았다. 모든 텍스트에는 텍스트 그 속에서든 문맥 속에서든, 의미론적 기능이 문법적으로 한정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⁷⁾ 이를 더 확장시켜 보자면 텍스트에서 제시되지 않은

5)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사이, 2017. 27면.

6) 마틴 맥퀼런, 이창남 역, 『폴 드 만과 탈구성적 텍스트』, 엘피, 2007. 70면.

7) 폴 드 만, 황성필 역, 『이론에 대한 저항』, 동문선, 2008. 40면.

알레고리 또한 독자들이 문맥상 연관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이 작가가 본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건이나 인물들로 서사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독서 행위를 유도하는 서사 전략을 살펴보는데 있어 본고의 논의에 참고점을 제공한다. 또한 알레고리(Allegory) 자체가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갖는 이야기의 유형이며 뚜렷한 이중적 구조를 통해 익히고 이해되며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⁸⁾라는 점에서 구태여 설화를 삽입해 본문을 구성하려는 이창준의 서술의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벤야민⁹⁾에 의하면 알레고리는 파편화된 세계에서 그 파편성을 극대화하는 미학 형식이지만 파편성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열에 의해 순간적으로 각 부분들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¹⁰⁾ 그렇다면 별개의 이야기로 보여지는 아기장수 및 김통정 설화가 셋김굿 사업을 두고 제주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과 어느 지점에서 공통된 요소들을 드러내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보여준 신화라는 환상적 요소가 3장의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요소들과 어떻게 접목되는지 살펴본 후 4장에 나타난 거시적인 측면인 정치적 요소와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 소설에 나타난 명시적 의미 뒤에 숨겨진 암시된 의미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알레고리적 독해를 통해 이창준의 창작관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8)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2004. 305면.

9) 벤야민은 사물이나 대상 그 자체를 나열·배열함으로써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물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사물을 배열해서 어느 한 순간, 하나의 인식을 얻어내는 방법은 영화의 몽타쥬 기법 등과 같은 예술이론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발터 벤야민,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008. 376-377면)

10) 배경열, 『이창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알레고리 고찰』, 『배달말』 제46집, 배달말학회, 2010. 151면.

2. 아기장수 설화에 담긴 알레고리적 의미망

『신화를 삼킨 섬』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는 '아기장수 이야기'¹¹⁾가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내부 서사와 알레고리적 의미망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독해를 위해서는 우선 아기장수 설화의 주변 서사를 뺀 기본 골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소설의 핵심적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포전설로 볼 수 있는 아기장수 이야기는 영웅이 성장하기도 전에 부모와 권력층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롤로그의 경우 아기장수가 비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후환이 두려운 부모가 자진해서 아이를 점지해 준 용마 바위에 생매장하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 에필로그에서는 그사이 성인이 된 아기장수가 군졸들에 의해 두 번째 죽음을 맞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용마바위 뒤편으로 용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후일담을 전하고 있다. 이야기의 전개상 아기장수에서의 주요 키워드는 아기장수, 그를 죽게 만든 부모, 군졸로 상징되는 권력층, 그리고 아기장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조력한 용마

11) 이러한 아기장수 설화에 대해 마희정은 이 이야기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탄생', '갈등의 발생과 극복', '죽음'의 문제와 같은 신화적 서사과정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게다가 아기장수 이야기는 현실적 비극의 약자라는 점과 부모의 세대가 권력의 폭압에 자유롭지 않았으므로 종잡을 수 없는 방황과 혼돈을 거듭하는 서사의 큰 과정을 이루고 있음(앞의 논문. 294면)을 지적했다. 한편 연남경은 비극적인 성격을 띠는 다른 반신 이야기와 달리 아기장수는 신성(神性)을 통한 과업달성보다 인간적인 관계망 속에서 신성이 수용되지 못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려지며 아기장수의 죽음 자체가 부모와 공동체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단 살해의 성격, 즉 희생양 메커니즘의 성격이 강하다(앞의 논문. 279면)고 보았다. 이소연의 경우, 아기장수 설화는 힘없는 민중을 억압하는 국가 권력과 이에 저항하는 개인 간의 비정한 투쟁이 집단 무의식이란 심층적 차원에 위치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이정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신화적 리얼리즘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74집, 2016. 237면)했다. 이들 논의들은 본고의 참고점을 제공해 주나 아기장수에 관한 해석 및 소설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본고의 문제의식과는 차별점이 있다.

다. 알레고리¹²⁾에서 중요한 것은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때, 아기장수 설화에서 앞서 말한 몇 가지 주요 키워드들이 갖는 관계의 상징성들이 해명되어야만 구태여 이 설화를 소설의 일부로 개입시킨 이청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들이 문맥상 어떠한 연관을 맺으며 이야기 속에서 의미망을 형성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아기장수’를 대하는 주변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아기장수’라는 영웅의 탄생은 권력층이든 민중이든 간에 모두가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권력층의 경우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아기장수의 탄생을 달갑지 않기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제거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영웅을 고대하는 민중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기장수 설화’에서 민중들은 표면적으로 영웅이 오기를 기원하지만 막상 눈앞에 나타나면 권력층의 횡포가 두려워 오히려 자신들의 선에서 제거해 버리는 아기장수 부모 또한 그러하다. 게다가 ‘김통정’란 인물처럼 민중들에게 영웅이 됨과 동시에 또 다른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웅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나타낸다. 요컨대 민중들은 영웅 그 자체보다 영웅으로 인해 얻게 되는 공동체의 목적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동체는 실제 인물보다 자신들의 희망과 요구를 담은 전범(典範)적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웅은 실제 여부와는 별개로 베일에 가려 있을 때 오히려 그 영향력을 지닐 수 있으며 민중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영웅에게 오히려 심적으로 기대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권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

12) 폴 드만의 『독서의 알레고리』의 개념에 대해 잠시 숙고해 보자면 독서는 책 속의 기호를 매개로 저자가 말하는 것을 실제 현상의 사태와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이는 통해 기호의 지시성이 설정된다. 그런 점에서 독서가 일종의 이해의 과정이며 지시체(기표)와 지시대상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서의 행위가 일종의 알레고리적 상황을 내장하고 있다고 폴 드만은 밝히고 있다.(폴 드만, 이창남 역, 『독서의 알레고리』, 문학과 지성사, 407면)

컨대 이과장에 관한 고종민의 질문에 “조직의 주인은 조직 자체지 그 구성원이 아니다”(274면)란 송일씨의 대답이 바로 그러하다. 아 이러니하게도 권력이든 영웅이든 상징적으로 남아야만 그 의미가 있으며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때 오히려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아기장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용마와 용마바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다. 우선 용마는 하늘의 명을 받아 용마바위에서 아기장수를 점지하였고(8면) 자신의 울음소리로 바위 문을 열게 만들어 장수를 은신시킬 공간을 제공한다. 설화상에서 오직 용마만이 아기장수의 조력자이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용마의 태생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용마는 수컷용이 암컷 말을 임신시켜 태어난 말로 일종의 환상중에 해당한다.¹³⁾ 즉 용마는 신과 미물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라 할 때, 소설상 이 역할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심방 혹은 무당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추 심방의 어머니가 추심방 형제의 태몽으로 흰 용마와 흑 용마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다.

게다가 용마가 머무르던 용마바위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곳은 아기장수의 시작(점지)과 끝을 함께 한 장소로써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소설 속에서 용마바위는 장소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하나는 장소에 대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다. 통상 우리는 소설 속에서 상처와 고통 받은 존재를 인간에게만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신화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이는 인간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인 존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할 때, 작가는 그 비극적 사건의 시초가 된 장소, 그 자리에 대한 애도를 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생명체가 아닌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소설 쓰기 작업이 동화로 바뀐 이창

13) 네이버 백과사전.

준의 또 다른 창작방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장소가 주는 고유성 때문이다. 아기장수를 한 개인으로 보았을 때, 용마바위에서 점지되지 않고 평범하게 태어났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라는 점이다. 이 지점은 4장에서 살펴볼 2명의 토벌대원을 기리는 세 번째 곳에서 그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던 조복순과 유정남의 의도와도 연관된다. 특히 토벌대가 죽은 ‘자리’는 남선리 고갯길 서낭목 근처로 만약 여기서 그들이 살해되지 않았다면 이후 400여명의 주민이 희생당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리’는 더 나아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 사건들, 이후 소설 전개상 남쪽 지방에서 벌어질 사건들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가늠해 보았을 때 이청준은 공간이 주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방식을 강구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모 및 지배 권력층과 대척점에 있는 아기장수는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가란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본고가 판단하기에 소설상에서 아기장수를 상징하는 인물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우선 인용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시위를 한 허물로 줄지에 재학 중 군 징집령을 받아 입영한 대학생의 총기 사고사. 산행 중에 누구도 접근이 쉽지 않은 위험한 절벽길 벼랑 아래서 목격자 없는 변사체로 발견된 노년기 민주 인사의 실족 추락사, 이적 표현물 소지 행위로 해당 수사기관에 연행됐다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 죽은 젊은 시위 주동자의 심장마비사, 까닭 모를 자살 사건, 종적 없는 실종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나 이웃들은 위장이네 조작이네 끝끝내 유관 기관의 발표와 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의문사와 수수께끼 실종 사건들, 근자의 계엄 정국 아래 줄줄이 터져 나온 이 나라 무당들의 새 셋김거리 원혼(하기야 이름과 죽음의 자리라도 분명한 그 혼백들은 이 섬의 이름

없는 무주고혼들에 비해 얼마나 축복스러운 처지인가!)의 사연 또한 다른 때 같았으면 아버지의 생각을 물을 겸 한두 가지 말을 흘렸을 법했지만 이번에는 입을 꼭 다문 채였다.(169면)

위 인용문을 읽고 추론해 보았을 때 아마도 그들은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죽은 영혼 가운데 누군가일 것이다. 예컨대 소설에서는 희생당한 인물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무참히 살해당했다고 언급된 바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아직 미래를 꽃피워 보지 못한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도 있었을 것이며 그 속에 영웅이 될 만한 인물이 있었으리란 가능성을 열어 볼 수 있다. 그들이 살아있었다라면 뭐가 될 수 있을만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염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기장수와 동일선상에 두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본고는 작가의 서술의도를 고민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작가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구분해 두 차례에 걸쳐 아기장수의 죽음을 서술하고 있다. 프롤로그의 죽음이 아기일 때 죽음을 당한 것이라면 에필로그에서의 죽음은 석 달 아흐레 동안 성인으로 바뀐 모습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구태여 이청준이 그의 죽음을 앞뒤로 배치해 구분하였다는 점은 나름의 의도된 장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선 첫 번째 죽음부터 살펴보자면 이는 ‘아기장수’로 불린 명칭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우리는 아기장수라는 이름이 주는 명칭 때문에 그가 장수 혹은 영웅이라는 선입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설화 속에서도 보다시피 그는 날개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 아직 ‘아기’에 불과한 존재일 따름이다. 폴 드만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를 표방하는 견해는 진실보다 언어의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가령 ‘거인’이란 단어는 사람들의 외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인 자신의 내적인 공포감과 관계된다는 점이다. 드만은 이 공포가 사실보다는 자신의 내적인 불확신에서 비롯

된다고 보았다.¹⁴⁾이 견해를 적용해 보자면 ‘장수(將帥)’라는 제목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로 인해 그 이면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실된 무언가가 묻혀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두 번째 죽음의 경우 이미 성인으로 변한 아기장수는 우람한 장수의 모습으로 무예와 전술을 익힌 자신의 부하들을 준비시켜 영웅으로 도약하려는 가능성이 예견된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원대한 뜻을 펼쳐 보이기도 전에 맞이한 아기장수의 죽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직 시작해 보지도 못한 역사적 사건의 주역들을 빗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설에서는 4·3사건에 희생된 자들은 평범한 인물로만 제시하고 있으나 그들 중에는 분명 역사적 사건의 중심축에 서 있는 인물들도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가령 육지부의 지팡이 인사처럼 말이다. 천만다행으로 지팡이 인사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그 이면에 수많은 인사들이 시작도 해 보기 전에 권력층에 의해 제거되었음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영웅의 비극적 종말은 민중의 절망과 고통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긴 하나 그 이면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웅이란 존재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될 때 민중들은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양가적 감정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결국 아기장수 설화는 민중들 모두가 영웅이 탄생되길 바라고 소망하나 정작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대변한다.

14) 마틴 맥퀼런, 앞의 책, 80-81면.

3. 영웅과 이웃 간의 관계 상징성

이러한 아기장수 설화는 제주도 사람들이 모시는 김통정 장군 설화에서 변이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본고는 김통정과 아기장수가 출생 당시 날개를 달고 있었다는 공통점 외에도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아기장수의 죽음을 살펴보자면 내부적이면서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라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지배층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지레 겁을 먹은 그의 부모와 그런 소문이 떠돌게 만든 이웃들에 의해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의 부모가 아기장수를 묻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든 것이 바로 ‘이웃까지 화를 입게 될 것’, 김통정 설화 중에서도 “원래 그의 성이 진씨인데 ‘아이의 비범함을 탐낸 이웃의 김씨가에서 ‘진’과 ‘김’이 비슷하다 하여 ‘김통정’으로 불리게 했다”(171면)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대목들은 아기장수에 출생과 성장에 있어 이웃 간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기장수 설화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광포 설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변이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기장수를 묻고 나서도 ‘아직도 아기장수가 살아 있다’란 소문 때문에 다시 묻은 바위로 찾아갔다는 대목¹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아기장수는 이웃들의 소문 때문에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만다. 김통정 설화의 경우 어머니의 비밀 속에 무사히 성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또한 내부 계략자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김통정이 탁월한 도술

15) 이청준의 동화 『아기장수의 꿈』에서는 기본 줄거리에 “조정의 반역을 피하고 민중을 구할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관군들이”란 구절이 언급된 바 있다. (김환희, 『설화와 전래동화의 장르적 경계선』, 『동화와 번역』 제 1집, 건국대 중원인문연구소, 2001. 90면)

과 비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은 ‘아기 업개’의 양값음 때문이다. 본고는 이 ‘아기 업개’의 행보에 특히 눈여겨 보았는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아기 업개는 자신만의 지략을 김방경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모시던 김통정 장군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및 자식까지 모두 죽임에 이르게 만든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기 업개는 이웃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겠다.

이 지점에서 본고는 이웃에 관한 작가의 심리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웃에 관한 소재는 그의 소설에서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니다. 그의 자전적 사실 가운데 ‘6·25 생매장 사건’이나 ‘울력판 생매장 작업’ 등이 그러하다. ‘6·25 생매장 사건’의 경우 외가댁 식구들을 생매장 시키는 가해자들은 다름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이웃들이다. ‘울력판 생매장 작업’의 경우 화자가 환각을 떠올릴 때 나타나는 얼굴은 ‘얼굴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얼굴이 완성되었을 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웃’들이다. 정치적 메커니즘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석되어 온 『당신들의 천국』¹⁶⁾에서도 이상욱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이웃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품는 면모를 심층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신화를 삼킨 섬』이 요선으로 인해 『당신들의 천국』과 이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소록도의 이웃에 관한 문제는 『신화를 삼킨 섬』의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는 아기장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되 김통정 설화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숨겨진

16) 이웃에 관한 대목이 모두 부정적으로 서술된 것은 아니다. 『당신들의 천국』의 경우 이상욱의 출생 비밀은 섬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며 그들의 은밀한 배려 속에 기를 수 있었던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이후 성인이 된 이상욱의 행보를 추이해 보았을 때 간척사업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도록 여건을 만든 그의 탈출극은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복수 즉 소록도 주민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근원에 자리잡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출고, 『이청준 소설의 서사구조와 전략 연구』, 충북대 박사논문, 2018. 90면)

장면은 설화 뿐 아니라 조복순이 치르는 세 번째 굿 가운데 토벌대의 희생자에 관한 남선리 마을의 사연에도 해당한다. 잠시 인용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림 쪽 해변 마을 남선리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매년 음력 선달 여드렛날이면 마치 세시제를 맞은 듯이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왔다. 사연인즉, 1949년 정월 어느 날, 이날 토벌군의 일부 병력이 이동 중에 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고 두 명의 전사자를 내게 됐다. 이 일로 뒤가 무사치 못할 것을 걱정한 마을 어른들은 의논 끝에 두 시신을 들것에 담아 신고 인근의 토벌대 본부로 찾아갔다. 그런데 흥분한 토벌군은 그 열 명의 노인 중 경찰 가족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총살해 버렸다. 그리고 이어 2개 소대의 병력으로 남선리에 덮쳐 들어가 가옥을 불 지르며 주민들을 인근 초등학교로 집결시킨 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약 3백 명을 총살하고 이튿날에도 다시 무장대 협력자로 지모하여 백 명 가까운 인명을 희생시켰다. 때가 되면 마을 집집마다 제사가 행해지는 곡절이었다.(밑줄 인용자, 99-100면)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토벌대가 열 명의 마을 어른 가운데 경찰 가족 한 명만 제외한 뒤 모두 총살시켰다는 점이다. 이 살아남은 한 집만 제외시켰다는 점은 마을 전체가 거의 몰살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이 집만이 공공의 적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 벌어질 보복극을 짐작케 한다. 권력층이 야기한 갈등은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소설상에서는 청죽회와 한얼회란 조직의 갈등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작가는 이를 통해 조직·국가라는 거창한 문제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원초적 감정이 불씨로 촉발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점은 앞의 장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특수적 사건이라고 단정짓기

보다 인간의 삶 자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또한 보여주려 한 것이다.

한편 김통정은 아기장수와는 달리 성인으로 성장하여 영웅적 인물로 추앙받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백성들에게 군림하는 또 다른 권력자로 상징되어 그에 대응되는 김방경 장군이 등장하게 된다. 여기에서 본고는 김통정 장군¹⁷⁾이 어떻게 영웅인 동시에 권력자란 이중적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영웅이 탄생하려면 필연적으로 그에 버금가는 악당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물리칠 악당이 없다면 영웅 또한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육지에서는 영웅이었던 그가 제주도에 와서 독재자로 변모되었다는 것은 제주도란 공간이 그런 혼란스러운 땅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제주도에서 김통정은 영웅이 아닌 단지 힘센 권력자일 뿐이고 그런 점에서 그는 제주백성과 육지 권력층에서 보았을 때 악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악당에 대응하는 인물로 김방경 장군을 앞에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그 중 본고가 흥미롭게 살펴본 것은 “제주도는 원래부터 기후나 수량 따위 자연조건이 열악하긴 하지만 저 고려조 삼별초란(三別抄亂) 이래로 물으로부터 수많은 환란을 겪어오게 되었다”(57면)고 언급한 대목이다. 이 대목

17) 소설에서는 김통정 장군이 역사적 사실과 전설상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역사 속 김통정은 패퇴한 삼별초군을 이끌고 제주도를 마지막 항쟁 거점으로 삼아 세력을 떨치다 고려장수 김방경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전설 속 김통정이 도술을 부리는 내용 외에도 제주도에 궁궐을 지어 스스로 '해상왕국'이라고 칭하며 제주 백성들에게 세금 및 부수적인 것들을 상납하게 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서 본고는 전설 속 김통정은 퇴각한 삼별초의 우두머리 역장이란 처지보다 해상왕국이라 칭하며 섬 백성들을 동원하여 성을 쌓고 세금을 거두었으며 섬 안에 인공 호수를 만들어 뱃놀이를 즐긴 권력자란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앞의 책, 172-173면 요약정리) 바로 이 지점은 김통정 설화 및 그에 대응하는 김방경 설화를 만들어 낸 제주 백성들의 심리를 좀 더 잘 보여주려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은 그간 제주도가 권력과는 먼, 권력이 미치지 않은 지역이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4·3사건과 같은 일은 국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제주도란 공간이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게 된 점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로 제공된다.

한편 이번 장에서는 작가의 숨겨진 장치를 발견할 수 있다. 제주도 각 마을에는 그 곳에 좌정한 당신(堂神)이 있기 마련인데 본문에서 김통정과 김방경 설화에 관련된 지역은 성산포와 서귀포 안덕면이다. 우선 인용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 다른 골은 알 수 없으되, 이 성산포 일대에선……(중략) 상차림을 기다리며 짐짓 한번 흘려 물은 소리에 그 역시 수삼 년 전 어느 가까운 육지부에서 흘러들어와 터를 잡게 됐노라는 여자가 마수걸이 손님 말 응대 삼아 건네온 소리가 그랬다.

“그럼 이 고을에도 동네 신당을 지키는 심방이 살고 있기는 한 모양이지요?”

“이 동네도 사람들 살아가는 일을 지켜주는 본향당신이 있어야 하니까요. 김통정 장군이라고…… 삼별춘가 뭐가 해서 옛날 물쭉에서 나라님에게 군사를 일으켜 대들었다가 이 섬까지 쫓겨 들어와 잡혀 죽은 장수가 있었다지 않아요. 이 골 당신은 그 김통정을 도술로 잡아 죽인 사람이래지 아마?”

아낙의 말만 믿고 안심해버릴 수는 없었지만 더욱이 김통정이 누구고 그를 잡아 죽인 섬귀신이 누구지 따위는 알 필요가 없었지만, 요선은 어쨌든 인근에 새 신당을 차리는 걸 시비 걸고 들 터무당이 없다는 데에 우선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었다.(밑줄 인용자, 22면)

(2) 김통정 장군이 당신으로 좌정해 있는 성산포 본향당의 반대쪽 고을 안덕면의 한 동네에는 김통정 장군의 설화에 이어 그를 잡아 죽인 김방경 장군이 당신으로 모셔져 긴 세월 그

의 설화가 되풀이 읊어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밑줄 인용자, 176면)

소설 초반에 해당하는 대목인 (1)에서는 요선이 성산포 일대를 둘러보다 식당 여자에게서 들은 그 고을 당신(堂神)에 내력에 대해서 다.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성산포 마을에는 김통정을 잡아 죽인 장군, 즉 김방경 장군이 당신(堂神)으로 좌정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에서 성산포 반대고을인 안덕면의 당신 또한 김방경 장군이며 성산포 본향당의 경우 김통정 장군이 좌정해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 보자면 성산포와 안덕면의 당신(堂神) 둘 다 김방경 장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치를 구상한 작가의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 본고는 두 가지 의미로 보았는데 하나는 ‘사실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다. 이 의문점은 청죽회와 한얼회가 주장하는 한라산 유골 신원확인과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알레고리로 접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주민에게 흔하게 내려오는 설화 가운데 자신의 마을에 상징하는 당신(堂神)의 유래조차도 파악하기 힘들며 하물며 반백년이나 묻혀 있던 유골의 신원확인을 과연 확인해 낼 수 있는가란 점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설에서는 청죽회와 한얼회의 희생자 공식 기록은 각기 다를 뿐 아니라 한라산 유골 연고자에 대한 양측 주장 또한 상반되는 까닭에 두 조직이 내세운 증인들 또한 과연 진짜일까란 의문을 들게 만든다. 이러한 장면들은 ‘진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화해가 가능할 수 있는가’란 문제의식에서 더 나아가 산자와 망자, 산자와 산자들의 화해를 도모하는 ‘곳’이란 속성 자체에까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하여 작가는 ‘메시지 전달’이 아닌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본고는 이 지점이 이청준만이 갖는 고유한 서사전략이라 판단된다. 한편 또 다른 하나는 ‘전제된 것에 의

문을 품을 필요성'에 대해서다. 통상 독자들은 작가가 제시한 대목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을 한번 비틀어 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소설을 꼼꼼하게 읽는 자세를 요구하게 만든다. 소설에서 하나의 세계를 여는 것은 작가인데 그가 연 세계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 이는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규범적 세계를 되돌아볼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이 이청준이 『신화를 삼킨 섬』에서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4. 『신화를 삼킨 섬』에 숨겨진 서사적 장치

『신화를 삼킨 섬』에서는 총 5번의 굿이 치러진다. (1)용두리 추심방의 진혼굿과(52면) (2)예송리 본향당신 새해굿판(135면), (3)남선리의 조복순 만신 진혼굿(187면), (4)한라산 동굴에서 발견된 유골을 위한 성산포에 신당을 차린 유정남의 씻김굿판(350면), 그리고 (5)금옥의 신내림굿(373면)이다. (1)과 (5)는 용두리 추심방에 의해 치러지는 굿인데 (5)의 경우 다른 굿과 달리 요선의 상상 속에서 치러지는 굿이다. (1),(2),(5)의 경우 내부 현지인들에 의해 치러지는 굿이라면 (3)과 (4)는 외부에서 들어온 육지무당에 의해서다. 무속의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전통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가치 관념들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죽은 자를 해원함과 동시에 산자를 보호하며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 또한 지니고 있다. 굿이라는 제의가 산자에게는 현실적 상처를 무속으로 치유해 주고 죽은 자에게는 이승의 한을 풀게 한다는 의미에서 (5)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굿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서도 (3)과 (4)의 굿은 큰 당집의 목적의식이 있는 만큼 다분히 정치성이 개입되어 있다. 제주

도로 넘어온 요선 일행과 조복순 모녀는 경제적 이득에 목적이 있는 관계로 다분히 상업적 성향이 짙다. 이과장으로 대변되는 작은당집과 큰당집의 ‘역사 씻기기’ 사업 또한 정권 창출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3)의 곳은 잔혹한 토벌대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면 (4)의 경우 죽은 영혼을 기리는 목적보다 청죽회와 한얼회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명분을 마련해 준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반백년이나 지난 한라산 유골에 대해 청죽회는 토벌대에 의한 집단 사살이라고 보는데 반해 한얼회의 경우 무장대 내부에서의 분열과 다툼에 의한 자폭이라고 주장한다. 이 일은 사실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큰당집의 명령으로 굿이 강제 집행되는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이과장의 행동이다. 청죽회와 한얼회의 싸움은 이과장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부추김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큰당집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이과장의 자기 주도적인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그는 공식적으로는 도청 문화진흥과의 과장이지만 그 이면엔 큰당집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아 굿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는 주관자 임무를 맡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권력의 대리자였던 이과장이 어느 순간 그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지팡이 인사의 K시 도착을 계기로 제주도의 씻김굿 사업을 중단하라는 육지부에서 하달받은 명령이 있긴 하였으나 그 명령은 대단히 간결하며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명령의 이면에는 섬 주민들의 민심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사회 불안을 조성시키라는 암묵적 지시가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태세는 제주도 태생이라 이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과장의 독단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대목에서 분고는 기존 논의와 차별화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존 논의¹⁸⁾들의 경우 소설의 시·공간적 배치를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직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1980. 5·18로 해석하기에는 소설의 시간적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큰 징 소리에 이어 그가 제식의 첫 순서를 알렸다.

“그럼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위령제 행사를 주관하실 대회장 이자 제관이신 도지사님의 고천사(告天辭)와 개식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일반 참석자들에게서는 고천사가 낭독되는 동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아주십시오.”(…중략…)

- 유세차(維歲次) 단기 4314년, 불기 2525년, 서기 1981년 한울님 포덕 122년, 신유 4월 30일. 불초 제주도 지사 현치용과 도내의 각계 참석자들은 30만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엄숙히 하늘에 고하나이다.(336면)

이에 대한 근거는 위 인용문을 보다시피 유정남이 치르는 위령제에서 사회자가 1981년임을 말하는 대목을 통해서다. 행여 혹자는 작가의 표기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기에는 ‘단기 4314년, 불기 2525년, 서기 1981년 한울님 포덕 122년’대목에서 보다시피 1981년을 상징하는 년도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작가의 의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는 기존 논의들이 왜 5·18로 해석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을 느꼈다. 소설 상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비상 계엄령이 확대 선포되고 남행 횡불을 이끌어온 지팡이 사내 또한 국가 변란 음모와 선동 고무죄 명목으로 체포 투옥되었다는 정보, 조만간 물에서 무당들이 씻겨야 할 생혼백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는(366-367면) 대목들을 통해 5·18로

18) 정과리, 『정치도 넘고 신화도 넘어, 또한 탑돌이도 넘어서』,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 지성사, 2011. 396면; 김윤식, 『제주도로 간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8년 겨울호. 337면; 고인환, 앞의 논문. 116면; 그 중에서도 이소연은 K골과 지팡이 사내가 가리키고 있는 구체적 대상을 오일광주 사건과 김대중임을 암시하고 있다(앞의 논문. 237면)고 명시한 바 있다.

해석할 여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작가는 시간적 배치 자체를 5·18로 연상시키게끔 독자들을 압박하게 만드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육지에서 벌어질 사건에 대해 5·18을 암시하는 여러 뉘앙스를 풍기면서 정작 1981년으로 표기한 작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 본고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았는데 우선 하나는 이러한 장치를 강구한 작가의 의도가 5·18을 단독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알레고리로 상정한 것으로 보았다. 아기장수 설화가 여러 역사적 사건에 대한 추상적 알레고리라면 5·18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상정된 알레고리라 할 수 있다. 알레고리란 현실의 연관을 부정해 그것을 구성한 인물 혹은 사물에 수사학적 힘을 가하여 변형시킴으로써 그 이면에 숨겨 놓은 본질적 의미 세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¹⁹⁾ 따라서 2003년에 출간된 『신화를 삼킨 섬』에서 4·3사건과 5·18을 연상시키는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예전과 방식만 다를 뿐, 여전히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의 이중성이다. 소설에서 제시된 4·3사건은 치유해야 할 과거의 기억으로 존재하며 곧 도래할 사건은 또 다른 피비린내를 몰고 올 5·18 항쟁이다. 소설상에서는 곧 도래할 사건처럼 비취지나 표기된 시간적 배치는 1981년이라 이미 지나간 역사란 점, 이 대목이 시간적 배치의 이중성을 띠고 있는 지점이다. 이 사이에서 독자들은 다시 한 번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되돌아보게 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이청준이 의도한 숨겨진 소설적 장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 방민호, 「〈童孩〉의 알레고리적 독해와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 4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554면.

5. 결론

본 논문은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의미와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신화 너머에 숨겨둔 속뜻을 통해 작가의 입장이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이청준 소설의 특질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아기장수 설화 및 그와 관련된 김통정 설화는 소설에서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전체 맥을 짚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본고는 이 설화들과 4·3사건 및 소설상에서 곧 도래할 것처럼 언급한 5·18 민주화 항쟁 등이 어떠한 긴밀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추적해 보았다. 이들은 한 자리에 묶이기 어려운 비동시성인 이야기들이다. 전혀 다른 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간에서 이들 이야기들은 조우하고 있다.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 아기장수는 4·3사건의 시간으로 침입하며 4·3사건은 5·18 사건으로 뛰어들려고 하나 작가는 1981년으로 표기해 우리가 알고 있는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은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한다. 다양한 시간대의 이야기를 한 자리에 모은 이러한 시간의 교란성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억을 새롭게 구성해 보려는 이청준만의 서사 전략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알레고리적 독해를 통해 메시지 전달이 아닌 보여주기 방식을 강구하였고 독자들로 하여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게 한다.

2장에서는 아기장수 설화에 관한 알레고리적 독해 방법으로 분석했다. 본고는 아기장수 설화에 등장하는 아기장수, 부모, 권력층, 그리고 아기장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조력한 용마와 같은 주요 키워드들이 갖는 관계의 상징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아기장수로 상징되는 존재들은 소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죽은 영혼 가운데 잠재성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을 어떤 누군가라 생각된다. 또한 아기장수의 죽음을 프롤로그와 에필로

그 앞뒤로 배치한 서술 장치 및 용마바위란 장소의 알레고리를 통해 4·3 사건의 대량학살이 벌어진 남선리 뒤 고갯길에 대한 공간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기장수의 비극적 종말은 민중의 절망과 고통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긴 하나 그 이면에는 영웅이란 존재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될 때 민중들은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양가적 감정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3장에서는 아기장수 변이형인 김통정 설화 속에 담긴 영웅과 이웃 간의 관계 상징성에 주목하였다. 이는 작가의 이전 소설들에서 나타난 이웃에 관한 소재들과도 관련시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웃에 대한 작중화자의 두려움과 배신은 이 소설상에서도 전개된다. 예컨대 소설에서는 청죽회와 한얼회란 조직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지만 작가는 조직·국가란 거창한 문제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원초적 감정의 불씨에서부터 촉발되는 것, 어떤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특수적 사건이라기보다 인간의 삶 자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4장에서는 이 소설에 숨겨진 서사적 장치를 분석했다. 텍스트에 나타난 5번의 굶판 중 외부인에 의해 치러진 두 번의 굶판은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K시와 지팡이 사내의 햇불 행렬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해석되어 온 것이 기존 논의들이라면 이와 달리 본고는 이러한 시간적 배치 자체를 5·18을 연상시키게끔 독자들을 압박하게 만드는 전략을 강구한 작가의 의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소설은 알레고리적 독해의 이중성 양상에 대해 보여준다. 통상 문학에서 알레고리란 역사 정치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아기장수 설화가 관념적이라면 지팡이 사내의 행

렬이 암시하는 5·18 항쟁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시하게 하는 구체성을 표상하는 알레고리란 점이다. 이는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듯 하면서도 실은 그것을 교묘히 피해가는 착란의 전략을 구사하는 작가의 실험적 시도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이청준은 정치적 메커니즘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석되어 온 『신화를 삼킨 섬』 그 이면에 이웃 간의 문제 및 인간사 근원적 문제가 심층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소설은 당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정치 및 권력의 실체와 문제점 외에도 인간의 삶 자체에 보편적이면서도 일상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이웃’ 모티프를 숨기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작가는 신화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암시된 의미를 숨겨두어 독자들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문학작품의 의미는 작품과 독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텍스트에 나타난 여러 암시된 요소들은 힌트로 작용한다. 여기서 이청준의 창작관의 변화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의 초기 소설에서는 이른바 ‘복수적 글쓰기’를 행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를 은폐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잘 알지 못하게 숨겨두는 서사 전략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화해로 나아가던 후기 소설에 오게 되면 작가는 혹여 독자들이 숨겨진 요소들을 찾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뉘앙스를 텍스트 곳곳에 남겨 둔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사전략이야말로 후기 창작관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이청준식만의 이중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신화를 삼킨 섬』은 대다수의 독자들이 이청준의 숨겨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여러 뉘앙스들을 통해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반면 텍스트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독자들의 경우 작가가 위장한 장치들을 통해 그가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러한

장치를 이용했는가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전략을 보여준다. 작가의 이러한 서술 의도는 독서를 단순히 읽기만 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독자 스스로 텍스트 내부에 참여를 하여 즐기는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여전히 유지시키면서도 소설의 긴장감을 잃지 않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신화를 삼킨 섬』은 이청준 고유의 창작관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독자들에게 친절해진 방식을 건네는 변화된 서사전략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쉽게도 논문의 분석방향이 설화적 요소에 집약된 점, 중요 등장인물들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이러한 작업은 『신화를 삼킨 섬』을 연구함에 있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의도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 지성사, 2011.

2. 논문

고인환,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김윤식, 「제주도로 간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8년 겨울호. 337면.

김환희, 「설화와 전래동화의 장르적 경계선」, 『동화와 번역』 제 1집, 건국대 중원인문연구소, 2001. 90면.

마희정,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회귀의 서사 구조」, 『현대소설연구』 제6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방민호, 「<童孩>의 알레고리적 독해와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 4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554면.

배경열,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알레고리 고찰」, 『배달말』 제46집, 배달말학회, 2010. 151면.

오은엽, 「이청준 소설의 신화적 상상력과 공간」, 『현대소설연구』 4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연남경, 「집단학살의 기억과 서사적 대응」, 『현대소설연구』 제46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이소연,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신화적 리얼리즘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74집, 2016. 237면.

이현영, 「이청준 소설의 서사구조와 전략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18. 90면.

주지영,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틀서사와 환유」, 『비평문학』 제 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차혜영, 「냉소적 이성과 권력의 거리, 이청준 후기 소설연구」, 『한국언어문화』, 제3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한순미,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3. 단행본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시아, 2017. 27면.

마틴 맥퀼런, 이창남 역, 『폴 드 만과 탈구성적 텍스트』, 앨피, 2007. 70면.

발터 벤야민,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008. 376-377면.

정과리, 『정치도 넘고 신화도 넘어, 또한 탐돌이도 넘어서』,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 지성사, 2011. 396면.

폴 드만, 이창남 역, 『독서의 알레고리』, 문학과 지성사, 407면.

_____, 황성필 역, 『이론에 대한 저항』, 동문선, 2008. 40면.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2004. 305면.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Strategy in ‘The Island Swallowed Myth’

Lee, Hyon-Young

This paper explores the Allegoric meaning and aspects of ‘The island swallowed a myth’ And it aims to characterize Lee Chung-jun’s novel by understanding the writer’s position or intention through the meaning hidden beyond the myth.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story of a baby hero as an Allegory reading. The book looked at the symbolic meaning and meaning of relationships among keywords such as a baby hero, parents, powerful people, and a dragon horse that help a baby hero to exist in a baby hero story. We also looked at the spatial meaning of the trail behind Namseon-ri, where the massacre took place, through Allegory, a narrative device that arranged the death of a baby hero, and a dragon horse rock. Meanwhile, Chapter 3 focused on the symbolic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ro and the neighbor in the legend of Kim Tong-jeong, a variation of a baby hero’s story. This can also be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author’s previous novels, which also unfolded the writer’s fear and betrayal of his neighbors. Chapter 4 explores the epic strategy behind the novel. The existing discussions have been interpreted as a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However, this paper analyzed the intentions of the author, who came up with a strategy to pressure readers to remind

them of the time layout itself of May 18.

Through the Allegory of Mythology, the author seeks to play the role of the reader by hiding the suggestive meaning of the realistic problems in the novel. Interestingly, unlike the early novels that set up traps for readers not to find hidden elements, Lee Chung-jun uses the so-called dual-device strategy of Lee Chung-jun when he comes to later novels. In short, ‘The island swallowed a myth’ allows readers to recognize the writer’s intentions through various nuances even if they do not realize Lee Chung Jun’s hidden intentions. And, for readers who carefully analyze text, it shows a strategy that makes the writer think about what he used to hide through the disguised devices. The author’s intention to describe the book is not just a read-only text, but rather to keep the reader from losing the tension in the novel while still maintaining the possibility of the text he enjoys by participating in it himself.

Key words: The Island swallowed a myth, the story of a baby hero, exorcism, Jeju Island, neighbors, heroes, epic strategies

투 고 일 : 2018년 8월 24일 심 사 일 : 2018년 8월 25일-9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9월 24일